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복음전도/교회개혁)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924년부터 해방 전까지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이 윌리엄 D. 커닝햄의 요즈야선교부가 파송한 내국인 사역자들과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 가족 그리고 1936년 11월 7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를 설립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 가족 등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이뤄졌으나 일제의 탄압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5-6년간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단됨으로써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살아남았으며, 채이스와 존 J. 힐(John J. Hill)이 재입국하여 생존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기반으로 신학교를 개교하는 등 사역을 재개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채이스와 힐 요한의 재건 노력과 폴 잉그람(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Lila Thompson),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등, 선교사들의 헌신과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 김은석, 최요한, 이신 등, 내국인 지도자들과 서울성서신학교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2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1950년대 말에 김은석 목사가 성경에 삽입시킨 주소록에 실린 72개의 교회숫자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¹⁾ 부산에서 방송선교를 전개하고 있던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도 1958년에 전국에 80여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언급하였고,²⁾ 힐 요한 선교사는 1960년대에 총

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298-300.

2) "Pastor Chung at the Pulpit of the Dia Kyo Church in Downtown Pusan,"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July 1958, p. 3. 빌즈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장성만 목사의 대교 그리스도의

82개의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록을 자필로 작성하여 남겼는데,³⁾ 이는 1970년도 <기독교연감>에 실린 총 92개 유약기 교회 숫자와도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1976년도 <기독교연감>에는 유약기교회가 106개로 나타났다.⁴⁾ 이후 1985년도 전국주소록에는 286개 유약기교회가 실렸다.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무려 180개의 교회가 증가한 것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기와 한국경제부흥기에 때맞춰 3개 신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목회자들이 공격적으로 교회들을 개척한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 협의회가 분열된 이후 2003년 전국통계에서는 협의회가 237개, 총회가 61개, 도합 298개에 그치고 있다. 1985년 이후 2003년까지 18년간 교회가 12개의 증가에 그친 것은 많은 수의 개척교회들이 공격적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총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은 대부분 일정한 성서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인성서훈련원이 채이스에 의해서 1937년에 설립되어 목회자들을 배출시켰고, 요츠야선교부가 파송한 토마스 헛치가 1938년에 설립한 서울성서훈련원, 김은석이 1946년에 시작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한성신학교의 전신인 한국성서신학교가 혈에 의해서 1959년 12월에 설립되어 목회자들을 배출시켰으며, 1981년 3월 2일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예배를 드린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최윤권에 의해서 1965년에 설립되어 목회자들을 배출시켰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교회개척과 성장은 1981

교회가 80여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크리스찬 라디오 밋손의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3)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387-90.

4)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서울문화인쇄, 2003), pp. 69-70.

년 2월 16일 한성신학교로 교명을 바꾼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와 1963년 서울 역촌동 캠퍼스에서 재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 1965년 서울 효창동에서 개교한 대한기독교신학교, 그리고 1981년 초 서울의 두 신학교가 통합하여 거듭난 서울기독교대학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이뤄졌다. 이밖에도 협의회와 총회가 실시하고 인준한 목회신학원들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전도가 이뤄졌다.

1) 서울 및 수도권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1960년대 이후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 복음 선교부(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의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과 또 각

각의 선교부에서 이뤄진 복음전도와 개척교회후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발전되어져갔으나 전국 교회숫자만 있을 뿐, 각각의 선교부와 신학교출신들이 세운 교회숫자에 대한 개별통계는 조사된바가 없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1959년 6월 3일까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선교부의 전 재산을 팔고, 1962년 말까지 휴교상태에서, 서울성서신학교의 새 캠퍼스 조성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배출된 목회자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전념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1955년 입국이후 착수한 교회방문과 후원사역을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시켜나

갔다. 그 단적인 예를 캠퍼스 조성이 한창이던 1962년 2월과 3월에 단행한 선교여행과 집회들에서 볼 수 있다. 테일러는 2월 7-8일 홍성으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동월 16-23일에도 홍성, 목포, 전주, 군산으로 다니며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다. 3월 중에도 전주를 거쳐 목포에서 열리는 일주일간 개최된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강의하였다.⁵⁾

테일러는 문서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1957년 3월에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여 수많은 교회와 학교 및 군목들에게도 발송하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고, 평신도들에게는 신약성서교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형식으로 발행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뀌었다. 매호마다 목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구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제대로 된 신약성서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수정관이 포함된 정관(조직플랜)을 만들었다.⁶⁾

테일러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는 기독교회선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 운영, 월간 <한길>의 출판이외에도 자신만의 문서선교에 주력하였다. 배도은은 수십 종류의 전도지를 수십만 부씩 찍어 전도용으로 활용하였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태광출판사(1975년 5월 26일 등록)를 세워 수십 권의 책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와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 연구)>(1983)는 직접 저술하였다. 이밖에도 복음전도용 영화필름을 구입하여 교회, 교도소, 군부대, 고아원 등에서 상영함으로써 복음전도에 큰 효과를 보았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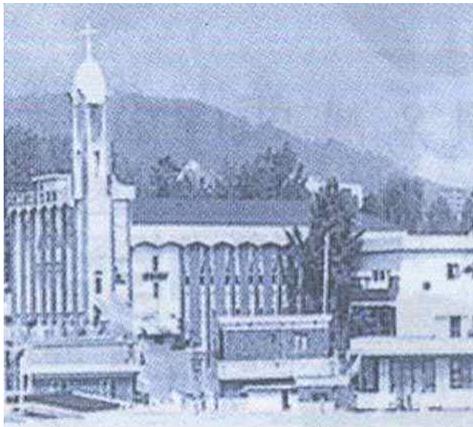
5) "To the Villages and Citie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1.

6) "Ton Am Dong,"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60, p. 1.

7)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p.

최윤권 목사는 미국유학 후 도원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1964년에 <환원>지를 창간하였으며, 1965년부터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힘썼다. 1975년 3월 5일에는 대한기독교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조직하였다. 이밖에도 최윤권 목사는 방송선교와 출판을 통해서도 신약성서교회를 홍보하였다. 1970년대에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목사, 김일엽 목사와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워,'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⁸⁾

2) 대전 및 충청권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1960년대 대전 및 충청권 교회들의 발전은 1959년에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한 힐 요한(John J. Hill)이 세운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 시기는 힐 요한 선교사의 생애 절정기였다. 힐과 한국성서신

학교는 1950년대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대를 잇고 있어서

151-53.

8)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 p. 65.

이 시기에 힐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른 선교사들과 신학교들보다 훨씬 더 컸다. 한편 힐은 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모금의 어려움으로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에 조기 은퇴하였다.

1957년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충청도에 19개(충북 13개, 충남 6개) 교회가 있었다. 이 숫자는 1950년대 말에 김은석 목사가 성경에 삽입한 주소록에 실린 24개(충북 14, 충남 10)와는 5개의 차이가 있다. 1965년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충청도에 35개(충북 16개, 충남 19개) 교회가 있었다.⁹⁾ 이 숫자는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 실린 35개(충북14, 충남21)와도 거의 일치한다. 또 1957년 충남에서 6개뿐이던 교회가 힐의 주소록에 15개가 증가한 21개로 나타난 것은 1960-71년까지 힐이 운영한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충북에서 1개만 증가한 것은 졸업생들에 의해서 꾸준히 교회들이 개척되었으나 다수의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이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로부터 1990년대까지 대전 및 충청권에서의 교회발전은 김찬영 목사가 운영하는 한성신학교(전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생들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한 가지 예로써, 한성신학교를 1982년에 졸업한 정일호 목사는 총회장직을 13차례 수행하는 동안 총 7개의 교회(상삼교회, 충주중앙교회, 창동중앙교회, 당우리교회, 팔봉교회, 원평교회, 은혜로운교회)를 개척하였고, 현 총회회관 마련에 공헌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수면아래에 있던 대기신교역자회와 한성교역자회의 갈등이 1989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54차 협의회 총회 때 수면위로 드러남으로써 이듬해인 1990년 2월 유성 경하장에 모인 한성교역자회가 총회를 창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한편 한성신학교에서는 조동호 교수의 제안으로 김

9)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2006), p. 324.

찬영 학장, 조동호 교수, 김상호 교수가 주축이 되어 1987년 12월에 한성신학교 교회개척후원회를 조직하여 졸업생들의 개척을 지원하였다. 이 후원회는 한성신학교가 1989년 8월 연산캠퍼스로 이전한 이후로 10여 년간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조동호 목사가 미력하지만 지속시켜나갔다.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후원회를 운영해온 조동호의 개인 기록과 한국 그

리스도의 교회 총회회보 내용을 종합해볼 때,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한성신학교(한민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62개이고, 확보 가능한 총회회보에 실린 개척교회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54개이다. 총회회보에 실린 54개 가운데 29개는 비한성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세운 개척교회 숫자이다. 그러나 29개의 숫자는 총 8년 치의 누락된 회보들에 실렸을 비한성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설립한 교회들을 추가하면 4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24년간 총 100여개의 개척교회가 총회 소속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00여개 개척교회들 가운데 총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수가 실패했거나 타 교단으로 이적한 때문이다. 2009년 총회회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총 73개의 교회들 가운데 한성신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이 세운 교회들이 22개 정도, 기존교회들이 13곳 정도, 나머지가 총회신학원에서 공부한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들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한성신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이 세운 교회들 총 62개 가운데 40여 개가 생존에 실패 또는 타 교단으

로 이적하였고, 35퍼센트인 22개 정도만 남았다는 뜻이 된다. 반면에 총회신학원을 통해서 총회에 가입한, 다수의 여성들을 포함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총회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3) 목포, 광주 및 전라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및 전라권의 교회들은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내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1957년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전남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17개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1956년 6월에 19개 교회가 있다고 하였다.¹¹⁾ 최요한 목사가 1957년 10월 1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1946년부터 7개 교회를 개척하였

고, 4개 교회를 환원시킨 결과이자, 김은석 목사의 헌신에 의한 열매들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0년대 말 자신의 성경에 전라남도 교회 주소 29(30)개를 적어놓았다. 전라남도에서 이뤄진 이괄목할 성장은 1965년도 <기독교 연감>에서 25개(전남 24, 전북 1)로 소개되었는데,¹²⁾ 이 숫자는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

10)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457-60.

11) "To the Far Corner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2.

1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24.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실린 28개(전남26, 전북2)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후 최요한 목사는 1963년부터 1973년까지 6개 교회를 더 개척하였고, 1980년대까지 3개 교회의 개척을 지원하였으며, 또 다른 3개 교회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태로 하여 개척되었다. 이밖에도 7개의 교회들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으로 환원했거나 개척되었다.¹³⁾

광주에서는 김동열 목사가 1960년대부터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Kwang Ju Church of Christ)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폐쇄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 교단에서 오해하여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전에 타격을 입었다.¹⁴⁾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는 한 때 15개 교회에 이르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김동열 목사의 두 자제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시무하는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를 포함하여 5개 교회 정도만 남아있다.

13)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548-550.

1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81.

4) 부산 및 영동과 영남권



부산 동서대학교 및 경남정보대학 대학교회

리처드 래쉬 선교사는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장성만 목사를 돕기 위해서 1964년 강릉을 떠나 부산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1971년 8월까지 영동지역의 교회들, 곧 삼척교회, 주문진교회, 영동(탄광)교회, 강릉교회, 평산교회를 돌보고 후원하였다.¹⁵⁾ 주문진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여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고,¹⁶⁾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어 1967년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건축비용은 래쉬가 1963년에 설립한 '한국인 교회 지원자 클럽'(Korean Church Helpers Club) 기금에서 충당되었다.¹⁷⁾ 강릉교회는 1969년에 현금액수가 늘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¹⁸⁾ 평산교회는 1964년 초에 대

15)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16) Flashes from the Lashes, 25 August 1969.

17) Flashes from the Lashes, 25 September 1967.

18) Flashes from the Lashes, 25 November 1959; 25 August 1969.

다수가 초신자들인 250여명이 출석하고 있었다.¹⁹⁾ 래쉬 가족은 한국을 떠나기 2-3주전인 1981년 8월 둘째 주간에 이들 다섯 개의 교회들을 기쁨으로 순방하였다.²⁰⁾

장성만 목사는 자신의 대교교회를 1964년 1월에 부산 YMCA 3층 강당으로 옮겼다가 리처드 래쉬 선교사가 1966년 '동서기독교실업학교' 강당에서 시작한 대학교회와 1970년 3월에 통합하여 명칭을 부산기독교교회로 개명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연건평 800여 평, 600여석의 본당을 비롯한 소예배실, 교육관, 식당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회를 신축한 후 부산기독교교회를 학교법인 동서학원 대학교회로 개칭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상남북도에 양정식 목사가 시무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및 안동 그리스도의 교회, 송영희 전도사가 시무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그리스도의 교회, 한의사 애국지사 오현팔 목사가 1945년에 개척한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 1970-80년대에 세워진 교회들로는 성결교회에서 환원한 이병우 목사가 시무한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와 강나루 목사가 시무한 동부제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는 장성만에 의해서 1975년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462번지에 세워졌고, 동부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100-2번지에 장성만의 제자로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졸업한 강나루(본명 강병기)에 의해서 1983년에 세워졌다. 이밖에도 버트 엘리스(Bert Ellis) 선교사가 세운 동광교회와 동아교회가 있었고,²¹⁾ 울산교회가 있었다. 울산교회는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현 예배당을 매입한 곳이었다.²²⁾

19) Flashes from the Lashes, 11 February 1964.

20)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21) Korean Broadcasting Mission, May-June 1966.

22)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